

거룩한 선물인 '시간'



기억절 - 창세기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을 안식하셨음이더라”



록 잔디 위에서 호랑이와 표범이 뒹굴며 놀고, 동시에 그 근처에서는 양과 사슴 무리가 안전하게 풀을 뜯고 있었겠지요.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술래잡기를 하고 캥거루 한 쌍은 꺽충꺽충 뛰며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다람쥐들은 서로 나무 위에서 쏘르르 쫓아다니고 원숭이들은 나무줄기를 그네 삼아 타고 놀며 수사자와 암사자는 서로 활아 줍니다.

그날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모두 온순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길들여진 반려동물 같은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일요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 불리는 곳에 이 아름답고 매우 특별한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곧 창조하실 최초의 사람들이 거할 안식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창조 사역 중 가장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내용은 내일 알아보도록 합시다.

적용하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다치게 하거나 괴롭혀도 될까요?

거의 끝났습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도 다른 다섯 날처럼 해가 질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노래하는 새들과 경이로운 바다의 생물들은 이미 모두 창조되었습니다. 최초의 금요일에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24, 25** □ 을 읽어 보세요.

새로 지음 받은 동물들이 그들 생애의 첫 하루를 얼마나 즐겁게 맞이했을지 상상이 되나요? 그들은 이미 모두 완전히 다 자란 상태로 지음 받았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무엇을 먹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온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거대한 코끼리들이 코를 길게 뻗어 나무 위의 맛있는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긴 목을 쭉 편 기린이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얼룩말과 야생말은 갈기와 꼬리를 휘날리며 서로 달리기 경주를 했을 것입니다. 초

월요일

우리의 최초의 부모님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① 천사들과 우주의 다른 세계 거민들도 실제로 존재할까요? ② 그들이 무엇으로 지음 받았는지 알고 있나요? ③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

1



2



3



MY Bible Says
Yr. A
No. 4





을 사용하여 만드셨나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예’,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창세기 2:7** □ 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바로 다 자란 상태의 온전한 생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지으실 때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7** □ 을 다시 신중하게 읽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레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는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 빚으셨을 때 그의 머리, 눈, 귀, 입, 심장 그리고 폐와 그 외 모든 기관들이 작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를 가까이 안고 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첫 번째 깊은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을 때,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다음, 아담에게 그의 집을 보여주며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아담의 두뇌에서 고도의 지능이 완벽하게 작동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동물까지 이름을 지어준 후, 아담은 아마도 무언가를 찾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전함을 아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들이 짝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각각의 수컷과 암컷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땠나요?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누릴 짝이 필요했습니다.

적용하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는 ‘생령’ 혹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7** □ 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화요일

최초의 결혼식

하 나님께서서는 아담의 생각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 짝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야 정말 짝이 생겼을 때 훨씬 더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깜짝 선물을 좋아하나요?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서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볼을 꼬집을 정도로 황홀해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행복한 놀라움이 바로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2:20-22** □

아담이 일어나 눈을 떠서 주변에 아름다운 세계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뭔지 모를 이상함과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지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인을 보자마자 그의 입가에 깊은 미소가 지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모든 것은 완벽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23절에 나오는 구절을 결혼 축가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24절** □ 은 하나님이 그 둘에게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나요?

아담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보다 두 배 정도 키가 컸고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하와는 아담보다는 살짝 작지만 아담의 어깨 정도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서로에게 속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 둘 사이를 가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집을 보여 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창조하신 세상을 보여 주며 아주 신이 났을 게 분명합니다. 하와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동물들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바다의 수많은 생물을 관찰하는 것도 좋아했겠지요. 얼마나 완벽하고 벽찬 세상의 첫 금요일이었을까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지음 받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7** □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고,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랑을 가진 존재로 말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처럼 사람



4



Stars: NASA

5



6



도 그분을 자연스럽게 섬기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빌립보서 2:5).

적용하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하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온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날이었습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세상에 난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창조된 세상을 알면 알수록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게 될 거란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란다.” **시편 19:1** □

적용하기: 안식일에 하나님과 그의 창조에 대해 알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요일

생일잔치

창조는 완전하게 모두 마쳐졌습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 과정 내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는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기 1:31).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욥기 38:4-7** □

어쩌면 천사들의 노래는 생일 축하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저물면서 시작된 일곱째 날은 마치 지구의 생일과도 같았거든요. 이날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들의 정원 에덴동산에서 첫 안식일 아침을 맞이한 아담과 하와는 분명 매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에덴에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 아침 제일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곧바로 먹기만 하면 되는 먹을거리들이 주변에 풍성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아침 식사로 뭘 먹을지 고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예비하신 음식이 너무나 다양해서 얼마나 많은 식사 후에야 이것들을 다 먹어 볼 수 있을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보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그들의 에덴동산 집은 교회였고, 창조주께서는 안식일 학교 선생님이셨으며,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과 함께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지 에덴동산 안에만 거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날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언제나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서 환호했을지 상상이 되나요? 이제 **창세기 2:3** □ 을 읽어 봅시다.

안식일은 항상 매주의 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육 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사실이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쉬셨을까요? 왜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에 쉬지 않으셨을까요? 일곱째 날보다 첫째 날인 일요일이야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교회에 가는 날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쉬나요? 아니면 일을 끝내고 나서 쉬나요? 아마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요일에 쉬지 않으셨습니다.

일요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창조의 일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세

목요일

3000 B.C.

2000 B.C.

1000 B.C.

창세기 1:24-31,
2:1-8, 18-25장
부조와 선지자 2장
(영문 p44-51)

함께 읽기

가지는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셨습니다. 매 안식일 교과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천연계입니다. 안식일 오후야말로 천연계를 통하여 그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안식일 오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뭘 할지 미리 계획한다면 매 안식일마다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좋다면 야외로 나가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신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느끼고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제 칠일에 쉬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할 때 그 표징인 안식일을 영원히 기쁘게 지킬 것입니다. **출애굽기 20:8-11, 에스겔 20:20**

그 아름답고 완벽했던 에덴동산은 대홍수가 나기 직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새롭게 되는 날 에덴동산은 이곳으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천사들이 안식일에 모두 만나 사랑의 창조주를 예배할 것입니다. **이사야 66:22, 23**

적용하기: 왜 오늘날까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요?

57페이지로 가세요.

상의 모든 것을 단 육 일 동안에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라고 말합니다(이사야 40:28).

피곤해서 쉬는 ‘쉬’ 외에도 다른 종류의 ‘쉬’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쉬셨다고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분이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 혹은 끝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육 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칠일에 쉬셨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8-11**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그분과 같이 일곱째 날에 쉬기를 원하십니다. 에덴동산에서 맞이했던 아름다운 첫 안식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적용하기: 이번 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요일

안식일의 축복

여러분은 안식일 저녁 식사 이후 아무런 할 일이 없어 심심한 적이 있나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에덴동산에서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포도덩굴과 가지들을 정리하여 아름다운 동산 집의 천장과 벽을 만들었습니다. 달콤한 향을 가진 여러 종류의 꽃과 맛있는 과일들을 그 가지 위에 걸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런 일조차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다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일을 멈춥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더욱더 잘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그중 한

(이런 주 교과에 나오는 모든 성경 본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읽은 성경절마다 각 네모 박스에 체크 표시하세요.

A.D. 1000

A.D. 2000

Eternity